“만암·서옹 스님 결사 정신을 되살리자”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
고불총림연구원 출범 세미나
고불총림 역사 · 계승 방안 논의
만암→서옹 이어진 결사 조명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고불총림연구원 출범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공동체의 새로운 지향점을 논의했다.

고불총림의 역사적 위상과 계승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고불총림연구원 출범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을 고불총림연구원장으로 임명하고 고불총림의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불총림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고불총림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으며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고불총림연구원장 금강 스님은 ‘고불총림의 역사적 의의와 서옹 스님의 계승’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만암 스님에서 서옹 스님으로 이어진 결사정신의 구현을 강조했다.

먼저, 금강 스님은 “만암 스님이 창설한 고불총림은 백양사와 호남불교를 아우르는 결사이자 수행공동체”라며 “서옹 스님은 고불총림의 계승자로서 만암 스님의 가르침을 현대에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의 종단 체계에서 고불총림의 복원도 중요하지만, 만암 스님과 서옹 스님이 총림을 통해 추구한 결사 정신을 되살리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한 금강 스님은 “고불총림이 단순한 수행처를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수행 공동체가 돼야 한다”면서 만암 스님의 ‘반농반선’의 경제 모델과 자비실천 모델, 서옹 스님의 참사람수행프로그램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만암 스님과 서옹 스님은 선수행에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회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면서 “이를 계승한 고불총림의 선수행은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공동체의 치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고불총림연구원의 출범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불사”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현재 조계종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사찰이 마음치유와 위안, 자아성찰의 수행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만암 스님의 반농반선의 가풍을 철저히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무공 스님은 “백양사는 한국 정신문화를 시대마다 이끌어 가는 마중물과도 같은 곳”이라며 “고불총림연구원 설립을 계기로 백양사 14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수행과 자비보살행을 하셨던 역대 전등 스승들의 위업을 연구하고 하나하나 되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림복지관 ‘놀라운드’ 개소…‘디지털 복지’ 선도

11월 14일, 관내서 개소식
AR · VR, 드론, 모션인식 등
어르신 대상 디지털 돌봄도


스마트폰으로 미니 로봇을 조종해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VR과 AR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과 뉴미디어 체험이 이제 복지관에서도 가능해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산하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해경, 이하 중림복지관)은 11월 14일 관내에 미래복합문화공간 ‘놀라운드’ 개소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놀라운드’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증강현실, AI,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놀라운’과 ‘Digital Playground’가 결합한 ‘놀라운드’는 서울시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 조성 공모사업’과 중구청·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24 중구 저소득 시민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어르신과 초등학생 등 500여 명은 놀라운드 개소식에 참석해 새로운 복지 공간의 개방을 환영했다.

이해경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역주민들이 놀라운드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하고 체험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소외받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놀라운드 현판식 이후 이용자들은 각 층 별로 구성된 디지털 체험존에서 다종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1층 야외주차장에서는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 △드론축구, 3층 대강당에서는 △4족보행로봇 △AR활쏘기 체험 △슈팅글라이더 만들기, 본관 5층 프로그램실에서는 △AI마음상담소 △VR체험 △디지털페인팅 △미니로봇축구 △3D펜 키링 만들기, 5층 놀라운드에서는 버추얼큐브를 활용한 모션인식 게임 체험이 가능했다.

특히, 디지털 돌봄 체험 버스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검진, 대화상대, 보행보조 등의 생활 복지 디지털 기술을 제공했다.

디지털 체험을 즐긴 어린이들은 “계속 찾아와서 하고 싶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게 생기면 좋겠다” 등 소감을 남겼다.

김가령 기자

사노위, “화성 아리셀 참사, 협력사도 책임 있다”

11월 12일, 서초 삼성전자 앞서
유가족 · 시민단체 시민추모제 개최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생을 마감한 지 4달여 시간이 지난 가운데, 유가족들이 아리셀 납품을 받는 삼성전자에 ‘협력사 행동규범’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1월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개최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추모제’에 동참했다. 이날 추모제는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과 협력 관계인 삼성전자에 참사 해결과 거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은 추모기도에 앞서 연대의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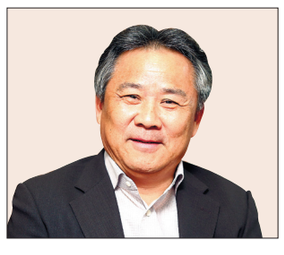
시경 스님은 “세계적 인권 의식 성장으로 노동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삼성 역시 윤리경영, 협력사 행동규범 등을 통해 이에 발맞추고 있으나 아리셀 참사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세계인들은 이제 제품 제작 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소비하므로 삼성전자는 이것을 알고 책임감에 따라 에스코넥에 행동규범 이행과 조사 참여, 유가족 협상을 요구해야한다”며 “사노위는 앞으로도 노동과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원하며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가령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 도전 승인

스포츠공정위 출마 ‘승인’
내년 1월 14일 선거 출마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회장(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전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 사진)의 연임 도전이 승인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1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하기로 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 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이기흥 회장은 2025년 1월 14일 개최되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어 3연임에 나서게 됐다.

한편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이기흥 회장에게 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11월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허운 스님, 관음사 주지)는 11월 12일 이기흥 회장에 대한 정부의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 참담함을 표하고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일동은 “불교계는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혐의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거나 이 회장의 입장을 무조건 편드는 것은 아니”라며 이 회장의 그간 업적을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올해 파리 올림픽 역대 최고 수준 성과 등 한국 체육사에 막대한 공헌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역임 및 현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수행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 애써온 일 등을 강조하며 “이를 비춰봤을 때, 이 회장에 대한 현재 ‘망신주기’식의 수사 의뢰는 너무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불광도서관, 4년 만에 대중 품으로

불광사, 11월 6일 재개관식 개최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임시 폐관



‘불서(佛書) 수집 전문도서관’인 불광도서관이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 잠실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는 11월 6일 불광교육원 3층 불광도서관에서 ‘불광도서관 재개관 기념행사’를 진행했다.〈사진〉

불광도서관은 1996년 10월 6일 불자들에게 다양한 불서와 불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관했다. 도서관은 불서뿐만 아니라 인문, 철학, 순수과학 등 8000여 권이 넘는 장서와 디지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임시 폐관됐다가 불광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4년 만에 재개관하게 됐다.

이날 재개관식에는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들과 불광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행사는 재개관을 기념하는 테이프 및 축하 떡 커팅식, 주지 동명 스님 인사말로 마무리됐다.

주지 동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광도서관 재개관을 계기로 불광교육원의 교육과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관 봉사팀장 및 봉사 팀원들은 “불광도서관 운영을 내실 있게 꾸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재개관한 불광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향후 불광교육원 교육강좌 수강생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운영시간 연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재 기자

대원상 출가부문 특별상에 심산 스님

진흥원, 11월 14일 수상자 발표



제21회 대원상 출가부문 특별상에 심산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제21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열고 11월 14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출가 부문 특별상에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이, 재가부문 장려상에 배광식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흥원은 “심산 스님은 ‘포교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장학사업을 비롯해 전국의 군법당 불사,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다”며 “국제포교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 본부장을 맡는 등 불교 발전에 힘쓰고 있는 공로를 인정해 출가부문 특별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BBS) 3층 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재 기자

조계종 포교원 ‘은빛 둘레길’ 개발

19번째 공개…5개 코스로 구성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19번째 개발한 ‘영천 팔공산 은빛 둘레길’을 공개했다. 포교원은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진행,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개 순례길을 개발했다.

이번 ‘영천 팔공산 은빛 둘레길’은 제10교구본사 은해사와 팔공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순례길이다. 은해사 분수광장부터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숲인 금포정(송천길)을 걷는 코스(1코스-1.3km)와 은해사-신일지-운부암(2코스-3.6km), 은해사-신일지-인종태실-백흥암-중암암(3코스-5.9km), 은해사-신일지-인종태실-백흥암-묘봉암(4코스-6.6km), 은해사-기기암(5코스-3km)을 걷는 5개 코스로 구성됐다. 코스는 왕복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4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포교원에서 개발한 순례길 팜플렛은 조계종 홈페이지-포교-포교자료-법회와설법-문서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해 사찰의 아름다운 길을 국민과 함께 사유하고 치유하는 수행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군종교구, 불자 군종부사관 연수

11월 5~8일 강원 三寺 순례해



군포교 최전선에 있는 불자 군종부사관을 격려하고 군포교 방안을 논의하는 연수가 열렸다.〈사진〉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11월 5~8일 강원 영동권(신흥사, 낙산사, 백담사) 사찰에서 ‘2024 우수불자 군종부사관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불자 불교 군종부사관을 격려하고 군종교구와 소속감 및 유대감을 확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승 7명, 불교 군종지원부사관 12명, 군종교구 1명 총 20명이 연수에 동참했다.

법원 스님은 “군종교구는 군종부사관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각 부대 상황에 맞는 포교활동 지원은 물론, 불교 군종부사관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군종장교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